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의 ‘히나(鄙)’에 대한 일고찰

고 선 윤*

(e-mail : sunyunko@yahoo.co.kr)

目 次

1. 머리말
 2. ‘히나’ 사람의 노래
 3. ‘히나’ 여자와 미야코 여자
 4. ‘히나’를 바라보는 미야코 사람의 눈
 5. 맺음말
-
-

1. 머리말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와카(和歌)를 중심으로 한 125개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최초의 우타 모노가타리(歌物語)이다. 작품 전체를 통해서 아리와라 나리히라(在原業平)¹⁾라고 생각되는 한 ‘남자(昔男)’²⁾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된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이세 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인 남자는 125개의 각각 다른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그 무대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주된 무대인 헤이안쿄(平安京, 교토)³⁾ 즉 ‘미야코(都, 도읍)’⁴⁾만이 아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고전문학

1) 『伊勢物語』는 業平의 일대기 형식이므로 『在五か物語』 또는 『在五中将日記』라고도 한다. 在五란 業平을 가리킨다. (吉田精一, 『日本文学鑑賞辞典』, 東京堂出版, 1975, p.20)

2) 『伊勢物語』의 각 단은 대부분 ‘옛날에 한 남자가(昔男)가’ 또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다(昔男ありけり)’로 시작된다. 따라서 『伊勢物語』는 昔男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인공이라 할 있는 昔男을 ‘남자’라고 하겠다.

미야코란 ‘미야비’⁵⁾의 어원으로 천황이 주거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중고 이래 대개 교토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문화·정치·경제의 중심지이며 귀족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당시 귀족사회를 배경으로 귀족의 삶을 그리고자 한다면 미야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세 모노가타리』의 무대는 미야코에서 벗어나 이세(伊勢) 지방이 그 무대⁶⁾가 되기도 하고, 동쪽지방이 그 무대⁷⁾가 되기도 한다.

미야코에서 벗어난, 이른바 미야코가 아닌 곳을 일컫는 용어로는 ‘이나카(ゐなか, 시골), ‘야마사토(山里, 산촌)’ 등이 있다. 그런데 ‘미야비’의 대비어가 ‘히나비’이므로, 미야코와 대비해서 ‘히나(鄙, 시골)’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히나’는 미야코 이외의 땅을 모두 포함한다기보다 미야코에서 먼 곳, 지방, 변두리를 가리킨다. ‘히나’는 미야코와 대립된 성질이 뚜렷하고, 그 차이가 두드러진 단어이다. 따라서 헤이안 시대 귀족의 주된 무대인 미야코를 의식한다면, 미야코가 아닌 무대에 대한 용어로는 ‘히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미야코가 아닌 곳을 ‘히나’라고 규정하겠다.

본고에서는 그 무대가 유독 미야코가 아닌, 즉 ‘히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것으로 『이세 모노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히나’의 세계,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생각하는 ‘히나’, 그리고 『이세 모노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2. ‘히나’ 사람의 노래

2. 1. 노래조차 촌스럽다는 평

『이세 모노가타리』는 기본적으로 작자 혹은 편자(語)手⁸⁾가 객관적 또는

3) 中古 이후, 고전 문학에서 미야코이라고 하면 平安京(京都)을 가리킨다. 794년 10월에 천도해서 1869년 천황의 東京着到까지 이곳이 수도이었다.

(三木紀人, 「都・鄙」(『国文学』, 学灯社, 1985. 9), p.30)

4) 미야코는 ‘宮’인데, 여기서 ‘こ’는 장소를 의미한다. 미야의 ‘미’는 신, 천황, 황족에 관한 것을 경외하는 접두어이다. ‘야’는 집이나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옥(屋), 사(舍)가 이것에 해당된다. 요컨대 미야코란 천황의 주거가 있는 소재지를 의미한다.

(三木紀人, 「都・鄙」(『国文学』, 学灯社, 1985. 9), p.30)

5) 궁정풍 혹은 도시풍을 의미하는 ‘미야’에 그런 양상을 의미하는 접미사 ‘비’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 (三田村雅子, 「みやび・をかし」(『国文学』 東京: 学灯社, 1985.9), p.52)

미야비’란 『万葉集』의 시가들이 쓰여졌던 시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인의 중요한 미의식의 하나이다. 『伊勢物語』는 ‘미야비’의 대표적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6) 伊勢斎宮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단.

7) 東下り 단

8) 『伊勢物語』는 작자가 명확하지 않고, 작자 이외의 사람이 작품에 손을 댄 여지가 충분하다. 사실상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작자 혹은 편자는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의 표면에 나와 직접 발언하기도하고, 비평이나 감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독자를 의식하는 작자 혹은 편자의 모습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동쪽지방으로 유리(東下)’⁹⁾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는 14단의 지문에 ‘노래조차 촌스럽다(歌さへぞひなびたりける)’는 지문이 있다. 여기에 앞에서 지적한 ‘히나비’라는 단어가 나온다. 미치노쿠(陸奥, 지금의 미야기현) 지방으로 정처 없이 떠난 남자에게 이 지방의 여자가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보내는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어설피게 사랑에 불타 죽는 것보다는, 짧은 생명일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부부 사이가 좋다는 누에가 되고 싶습니다’

노래조차 촌스럽다. 그래도 남자는 노래에 감동했는지, 여자에게 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なかなか恋に死なずは桑子にぞなるべかりける玉の緒ばかり」

歌さへぞひなびたりける。さすがにあはれとや思ひけむ、いきて寝にけり。(14단)¹⁰⁾

14단에서 여자의 노래를, 작자 혹은 편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노래조차 촌스럽다’라고 평가한다. 노래조차라는 말은, 노래는 물론이고 그 여자의 생김새나 사람됨 등이 모두 촌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남자는 여자가 지은 노래에 감동해서 여자를 만난다. 여자의 노래가 촌스럽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작자 혹은 편자의 생각일 뿐, 남자는 아무런 비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스즈키 히데오(鈴木日出男)의 말을 빌리면, ‘남자와 여자는 뭔가 공감을 했고, 노래(와카)가 그 매개체이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¹¹⁾ 주인공이 감동한 것은 노래의 형식이나 기교가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여자의 마음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주인공 남자가 여자의 노래에 감동해서 하루 밤을 같이 보냈다고 해도, 작자 혹은 편자는 여자의 노래에 대해서 단호하게 평가한다. 사실 누에고치 속에 암수가 같이 있는 것이 있기에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에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 미야코 사람에게서는 촌스러움 그 자체였을 뿐이다. 누에의 생태를

한사람의 작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 70년 이상에 걸쳐서 増補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야기 전개는 ‘작자 혹은 편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9) 남자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동쪽지방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 떠난다(9단). 이와 관련된 이야기군을 ‘東下」章段’이라 한다.

10) 본문 인용은 片桐洋一 外 校注,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日本古典文学全集 8卷, 小学館, 1982)로 하였다.

11) 鈴木日出男, 「色好みの成立」(『国文学』, 学灯社, 1991. 10), p.42.

모르는 미야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밤이 깊어 남자가 여자의 집을 나서자, 여자는 ‘날이 밝으면 저 바보 같은 닭을 물통에 집어넣어야겠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울어서 그 분을 보내버리다니(夜も明けばきつにはめなでくたかけのまだきに鳴きてせなをやりつる)’라는 또 한 수의 노래를 읊는다. 이 노래로 말미암아 남자는 완전히 떠나게 된다. 굳이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노래의 발상과 표현의 난폭함을 알 수 있다. 헤이안 시대 미야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시골 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소박한 애정의 정열이 한 순간이기는 하나 남자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 순간이었고, 결국 남자는 떠나버린다. 미야코 남자와 시골 여자의 만남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 나아가 미야코 사람의 ‘히나’에 대한 차별의식을 간과할 수 없다.

15단 역시 미치노쿠에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난다. 남자는 이 여자가 이런 시골에 살 그런 여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읊는다.

‘은밀히 가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속도 볼 수 있게’

여자는 남자를 한없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남자가 이런 조잡하고 촌스러운 이 마음을 보면 어찌하나.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しのぶ山しのびてかよふ道もがな人の心のおくも見るべく」

女、かぎりなくめでたしと思へど、さるさがなきえびす心を見ては、いかがはせんは。(15단)

이 여자는 14단의 여자와는 다르다. 여자는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곳에 살 것 같지 않은, 즉 촌스럽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미야코 남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여자는 남자를 너무나 팬찮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 물러서서 자신을 절제한다. 구보타 우쓰보(窪田空穂)는 15단의 여자에 대해서 ‘교양 있는 자만이 가지는 총명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임을 알고 남자의 요망을 거부한다. 이런 자발적 지성이 정숙이고 도덕이다’¹²⁾라고 극찬한다. 14단과 15단은 비록 그 배경이 같은 ‘히나’이기는 하지만 15단의 여자에게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14단의 여자와는 다르게 그려졌다. 한편 이런 전제조건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단의 여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곳이 ‘히나’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촌스러운 이 마음(えびす心¹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촌스럽지 않은 팬찮은 여자로 묘사되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총명한 것은 자신이 존재하

12) 窪田空穂, 『伊勢物語評釈』, 東京堂出版, 1977, p.67.

13) えびす(夷)는 미야코에서 멀리 떨어진 미개척지의 땅에 사는 인민.

는 무대가 ‘히나’임을 알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총명하기 때문에 촌스럽지 않다. 그러나 총명하면 할수록 그녀가 존재하는 무대가 ‘히나’이라는 사실은 부각되고, 자신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강요한다. 결국 ‘히나’에 존재하는 여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결고리 속에 갇힌다.

2. 2.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괜찮다는 평

33단에서는 남자가 우바라 마을(菟原, 지금의 효고현)에서 여자에게 노래를 보낸다.

‘갈대밭으로 밀려오는 바닷물 높아지듯이 당신을 연모하는 이 마음 더해가네’
답가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포구의 은밀한 곳 같아서, 배 짓는 샷대로 찢어보는 것만으로는 나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あしべより満ちくるしほのいやましに君に心を思ひますかな」

返し、

「こもり江に思ふ心をいかでかは舟さす棹のさしてしるべき」

みなか人のことには、よしやあしや。(33단)

남자의 노래에 대한 여자의 답가를, 작자 혹은 편자는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라는 토를 달고 있다. 상당히 괜찮다는 뜻일 것이다. 단 이 말에는 촌사람은 노래를 잘 짓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헤이안 시대 미야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의 하나가 노래 즉 ‘와카’인데, 시골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미야코의 우월적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87단의 무대 역시 33단과 같은 세쓰 지방의 우바라이다. 남자는 이곳에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유람을 하고 돌아온다. 그날 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았던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 이 집 아이들이 파도에 밀려온 해조를 주워서 온다.

…여자가 해조를 받침이 있는 나무그릇에 담고 떡갈나무 잎으로 그것을 덮어 보내왔다. 그 떡갈나무 잎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바다의 신이 머리에 꽂는다는 소중한 해조를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오리다’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女房より、その海松を高杯にもりて、かしはをおほひていだしたる、かしはにかけり。
「わたつみのかざしにさすといはふ藻も君がためにはをしまざりけり」
ゐなかの人の歌にては、あまれりや、たらずや。(87단)

실로 교양과 센스가 돋보이는 방법으로 노래와 해초를 받치고 있다. 해조(海藻, みる)와 해송(海松, みる)의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소나무는 영원한 것을 상징한다. 한편 그것을 떡갈나무 잎으로 덮었는데, 떡갈나무 역시 불노장수의 상징물이다. 손님들의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¹⁴⁾일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작자 혹은 편자는 또다시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라는 말을 덧붙인다. 미야코 사람은 결국 ‘히나’ 사람의 노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논자는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래마저 촌스럽다’고 평한 14단의 노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가집인 『만요슈(万葉集)』 권 12(3086)에 실린 노래(なかなか人にあらずは桑子にもならましものを玉の緒ばかり)를 개작한 것이다.¹⁵⁾ 또한 ‘촌사람치고는’이라고 평한 33단과 87단의 노래는 각각 고사가 천황(後嵯峨天皇, 재위 1242~1246)의 명으로 후지와라 사다이에(藤原定家)가 찬집한 『쇼쿠고센와카슈(続後撰和歌集)』 694에, 헤이안 중기에 편찬된 『고킨와카로쿠조(古今和歌六帖)』 2323에 수록된 노래들¹⁶⁾이다. 『이세 모노가타리』의 작자 혹은 편자는 이런 훌륭한 시가집에 수록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읊는 사람을 ‘히나’ 사람으로 설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촌스럽다거나, 촌사람의 노래치고는 봐줄만한 그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견 당시 ‘히나’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하다. 바로 미야코 우월주의라 할 수 있겠다.

3. ‘히나’ 여자와 미야코 여자

3. 1. 이별을 전제로 한 시골 여자

『이세 모노가타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 남자의 사랑이야기는 ‘히나’에서도 여전하다. 그런데 대개 이 사랑은 이별을 담고 있다. 이미 앞에서 본 14단의 여자, 33단의 여자라도 이별한다. 물론 그 후 사정이 어떻

14) 片桐洋一, 『伊勢物語 大和物語』(鑑賞 日本古典文学 5, 角川書店, 1981), p.218

15) 窪田空穂, 『伊勢物語評釈』, 東京堂出版, 1977, p.64.

16) 구정호, 『아무도 모를 내 다니는 사랑길』, 제이앤씨, 2005 p.101, p.239 참조

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이별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다. 20단에서 남자는 야마토(大和, 奈良부근)에 사는 여자를 만난다. 그런데 남자는 궁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미야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남자는 궁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미야코로 돌아가는 도중, 3월경, 색을 띤 어린잎이 아주 정취 있게 난 가지를 꺾어서 여자에게 보냈다.

‘당신을 위해서 꺾은 나뭇잎까지는 봄임에도 가을처럼 물들어버렸네’
라고 노래를 함께 보내니, 대답은 남자가 미야코에 도착한 다음에 왔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색이 변해버렸나요. 당신이 계신 곳에는 봄이 없는 것 같습니다’

…宮仕へする人なりければ、かへり来る道に、三月ばかりに、かへでのもみぢのいともしろきを折りて、女のもとに、道よりいひやる。

「君がため手折れる枝は春ながらかくこそ秋のもみぢしにけれ」
とてやしたりければ、返りごこは京に来着きてなむもて来たりける。

「いつのまにうつろふ色のつきぬらむ君が里には春なかるらし」(20단)

남자는 떠나는 길에서 본 멋진 어린잎을 여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노래와 함께 보내는데,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모른 채하면서 원망의 노래를 보낸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별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115단 역시 이별을 전제한 이야기다.

옛날 미치노쿠에 남자가 살고 있었다. 남자는 미야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여자는 너무 슬퍼서 송별연이라도 하려고 ‘오키노이테 미야코 시마’(소재 불명)라는 곳에서 술을 들게 하고 노래를 읊었다.

‘숯불이 몸에 붙어 타는 일보다 더 슬픈 것은 미야코로 떠나는 당신과 이별하는 미야코 시마에서의 이별입니다’

むかし、陸奥の国にて、男女すみけり。男、「みやこへいなむ」といふ。この女、いとかなしうて、いまのはなむけをだにせむとて、おきのゐて、みやこしまといふ所にて、酒飲ませてよめる。

「おきのゐて身を焼くよりも悲しきはみやこしまへの別れなりけり」(115단)

남자는 원래 미야코 사람인지라 미야코로 돌아가고 싶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히나’를 배경으로, ‘히나’ 여자와의 만남은 결국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히나’ 여자와의 만남은 이별을 전제한 만남이고, 설사 그 만남이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남자가 ‘히나’를 떠나면서 이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3. 2. 잊지 못하는 미야코 여자

이에 반해 남자는, 몸은 비록 ‘히나’에 있어도 줄곧 미야코 여자를 찾는다.

옛날 한 남자 그냥 미치노쿠까지 헤매며 갔다. 미야코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노래
‘파도 사이로 보이는 작은 섬의 하마비사시(오래되다)처럼, 당신을 못 만난지 오래 되었네’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는 뜻으로 보낸 것이다.

むかし、男、すずろに陸奥の国までまどひいにけり。京に思ふ人にいひやる、
「浪間より見ゆる小島のはまびさし久しくなりぬ君にあひ見て」
「何ごとも、みなよくなり」にけり」となむいひやりける。(116단)

7단에서 15단까지의 ‘동쪽지방으로 유리’ 단을 하나로 축약한 듯한 이야기다. ‘동쪽지방으로의 유리’ 단에서 남자는 나약한 모습으로 헤매면서 항시 미야코를 생각했다. 9단의 ‘미야코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너에게 물어보겠다. 나의 님은 잘 있는지(名にしおはばいざこと問はむみやことりわが思ふ人はありやなしやと)’가 그 대표적 노래이다. 동쪽 지방에서 여자를 만나면서도 미야코 여자를 그리워하고 찾는 구절이 ‘동쪽지방으로의 유리’ 단 사이사이에 보인다. 이렇게 남자는 그 무대가 ‘히나’임에도 항상 마음은 미야코에 있는 여자를 향하고 있다.

3. 3. 미야코를 버리고 ‘히나’로 내려간 여자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여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궁중일이 바빠서 아내를 마음마저 성실하게 사랑해주지 못하자, 그 아내는 성실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지방으로 가버렸다(宮任へいそがしく、心もまめならざりけるほどの家刀自、まめに思はむといふ人につきて、人の国へいにけり)’(60단)로 시작된다. 여기서 ‘마메(まめ, 성실)’라는 단어는 참 중요하다. 논자는 ‘성실하다’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미다스(乱す, 흐트러지다)’의 반대 개념이다.¹⁷⁾ 흐트러지거나 문란해지는 일 없이 한결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남자를 ‘마메 오토코’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강 감을 잡을 수 있다. 여자는 성실하지 못한 남편을 버리고 성실한 남자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니 원인은 남자에게 있다. 궁중일이 바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마음마저’라는 부분을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은 원인을 제공한 남자를 탓하기 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간 여자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흐른다.

17) 片桐洋一, 『伊勢物語 大和物語』(鑑賞 日本古典文学 5, 角川書店, 1981), p.47

…남자가 우사(지금의 大分県)의 칙사가 되어 가는 길에, 그 여자가 어느 지방의 칙사 접대직의 부인이 되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다. ‘여주인이 술을 따르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술은 마시지 않겠소’라고 해서, 여자가 술잔을 따라 내놓으니, 남자는 안주로 나온 꿀을 잡고

‘5월을 기다렸다 피는 꿀꽃의 향을 맡으니, 옛사람의 소매에서 나는 향이 그리워지구나’

…この男、宇佐の使にていきけるに、ある国の祇承の官人の妻にてなむあると聞きて、
「女あるじにかはらけとらせよ。さらずは飲まじ」といひければ、かはらけとりていだしたりけるに、さかななりける橋をとりて、

‘さつき待つ花たちばなの香をかけばむかしの人の袖の香ぞする’ (60단)

천황의 명을 받고 우사 신궁(宇佐神宮)으로 내려가는 칙사는, 도중에 거치는 지방에서 접대를 받는다. 접대를 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천황의 칙사인이라 그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¹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노래에 야유가 섞여 있다고 느꼈을까. 이에 대해서 가타기리 요이치(片桐洋一)는 ‘아니다. 일부다처제 시대에 특히 이 정도의 신분격차가 있을 경우는 오히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남자의 따뜻한 마음을 읽어야 한다’¹⁹⁾고 말한다. 결국 여자가 ‘옛 남편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비구니가 되어 산에 들어 가버린다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끝을 맺는다. 가타기리는 이런 남자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자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해석이다.

논자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자가 미야코가 아닌 ‘히나’로 내려 가버렸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성실하지 못한 남자를 버리고 성실한 지방 남자를 따라 나선 여자는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옛 남편의 노래 한 수에 자신의 선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출가한다. 이렇게 처음 이별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었음에도 여자의 불행으로 끝을 맺는 이 이야기에는 당시 ‘히나’에 대한 인식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미야코와 ‘히나’ 차원에서 파악한다면 미야코 남자와 ‘히나’로 내려간 여자의 대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다. 62단에도 미야코의 남자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비참해진 여자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62단도 남자가 몇 년이나 찾아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현명하지 못했는지

18) 구정호 『아무도 모를 내 다니는 사랑길』, 제이앤씨, 2005, p.161

19) 片桐洋一, 『伊勢物語 大和物語』(鑑賞 日本古典文学 5, 角川書店, 1981), p.139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의 말을 따라 지방에 사는 사람을 모셨는데(心かしくやあらざりけむ、はかなき人の言につきて、人の国なりける人につかはれて)’라는 표현으로 보아, 여자가 지방으로 간 이유는 여자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한다. 미야코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찾아오지 않는 남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자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시 옛 남편이 등장한다.

...이전의 남편 앞에서 식사 시중을 들게 되었다. 밤이 되자 ‘좀 전의 사람을 불러주시오’라고 남자가 집주인에게 말하자, 여자를 보냈다.
...もと見し人の前にいて来て、もの食はせなどしけり。夜さり、「このありつる人たまへ」とあるじにいひければ、おこせたりけり。(62단)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여자는 식사 시중을 들고, 집주인은 여자를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하는 입장인 모양이다. 아마도 신분 때문일 것이다.

남자는 ‘나를 모르시오’라고 하고,
‘과거의 그 향기는 어디로 갔는가. 벚꽃과 같은 당신의 모습은 이제 꽃이 다 떨어진 가지만 같군요’
라고 읊자,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왜 대답이 없는가’라고 하자, ‘눈물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男、「われをばしらずや」とて、
「いにしへのにほひはいづら桜花こけるからともなりにけるかな」
といふを、いとほづかしと思ひて。いらへもせでゐたるを、「などいらへもせぬ」といへば、
「涙のこぼるるにに目も見えず、ものもいはれず」といふ。(62단)

‘꽃이 다 떨어진 가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시골에 사는 여자의 몰골이 형평 없기는 없었나보다. 남자는 다시 노래를 읊는다. ‘나와의 만남을 피해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전보다 하나 나아진 곳이 없구나(これやこのわれにあふみのがれつつ年月経れどまさりがほなき)’. 나를 떠나 지방으로 왔으면 좋아져야지, 왜 이 모양이냐는 비아냥거림이 여실이 드러나는 노래이다. 궁지에 몰린 여자에게 남자는 입고 있던 옷을 던져주는데, 여자는 그것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결말이다. 어디로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설명이 덧붙는다.

60단과 62단은 둘 다 남편을 버리고 지방 즉 ‘히나’로 내려간 여인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야코를 떠나 ‘히나’로 내려간 여인에게서는 더 좋아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결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비참함만이 있다. 이것은 미야코와 ‘히나’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나타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4. ‘히나’를 바라보는 미야코 사람의 눈

4. 1. ‘히나’는 황폐한 곳

58단은 ‘풍류를 아는 남자가 나가오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心つきて色好みなる男、長岡といふ所に家つくりてをりけり)’로 시작한다. 나가오카라고 하면 나가오카쿄(長岡京)를 말한다.

나가오카쿄는 784년 간무(桓武) 천황이 헤이조쿄(平城京)에서 천도한 곳이다. 그런데 다음해 천도의 책임자였던 후지와라노 다테쓰구(藤原種継)가 암살되자, 그 용의자로 천황의 동생이자 황태자인 사와라 친왕(早良親王)이 지목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된다. 이는 무죄를 주장하다 아사하는데, 그 원한의 죽음은 많은 소문을 낳았다. 이후 천연두가 유행하고 황후와 황태자가 병에 걸리자 이것은 모두 사와라 친왕의 원령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서둘러 천도를 준비하고 794년 동쪽으로 수 킬로미터 옮겼다 이것이 헤이안쿄 천도이다.²⁰⁾

약 10년간 중심이었던 곳인데, 이곳은 아리와라 나리히라의 어머니(伊都内親王, 간무 천황의 왕녀)와도 관련이 있는 곳이다. 84단에 ‘어머니는 나가오카에 계셨다(その母、長岡といふ所にすみたまひけり)’는 구절이 있다. 나가오카는 구도읍지이다. 그런데 천도 후에도 이곳에는 간무 천황의 황녀가 그대로 살고 있었던 모양이다. 발굴에 의해, 미완성된 상태로 버려진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완성된 상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내친왕 즉 황녀 등이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자의 집 옆에는 황족의 집이 있고 거기에는 멋진 여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황녀들의 딸, 즉 나리히라와는 사촌지간의 여자들일 것이다. 시골이라 그녀들이 벼를 베어나갔다가 이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한 풍류남이 일을 하고 있구나(いみじのすき者のしわざや)’라고 야유하면서 집안까지 들어오니, 남자는 안으로 숨어버린다. 참으로 맹랑한 아가씨들이다. 소박하고 밝은 웃음 소리가 들린다. 이런 자유로운 설정은 미야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그림일 것이다.

‘황폐하다. 대체 몇 년이나 된 집일까. 집주인도 찾아오지 않구나’
라면서 이 집에 모여 있으니, 남자가
‘넉쿨 무성히 황폐한 이 집이 으스스한 것은 한때이기는 하지만 도깨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 武光誠(고선윤역), 『3일만에 읽는 일본사』, 서울문화사, 2000, p.53

라는 노래를 지었다.

「荒れにけりあはれいく世の宿なれやすみけむ人の訪れもせぬ」
といひて、この宮に集り来てありければ、この男、
「むぐら生ひて荒れたる宿のうれたきはかりにも鬼のすだくなりけり」
とてなむいだしたりける。(58단)

여자들이 모여서 깔깔거리고, 남자는 숨어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자 정 말 오래된 황폐한 집이라 살고 있는 사람조차 없어졌다고 놀린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나가오카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미야코 사람의 입장에서, 나가오카를 폐도로 보고, 이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여자의 노래에 대해서 남자도 ‘황폐한 이 집이 으스스한 것’이라고 받는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나가오카는 그렇게 황폐한 곳이 아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한때는 도읍지였던 곳이고, 거의 완성된 도읍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곳을 ‘황폐한’이라는 수식어로 장식하는 것은 ‘히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4. 2. ‘히나’는 신세타령을 하는 곳

66단의 남자는 세쓰 지방에 영지가 있다. 남자는 형, 동생, 친구들이랑 영지에 갔다가 아침에 나니와(難波, 지금의 오사카) 해변을 산보한다. 그리고 물가에 배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읊는다.

‘나니와 해변 오늘 와서 보니, 포구마다 배들은 많이 있구나. 세상을 힘겹게 건너는 배’
「難波津を今朝こそみつの浦ごとにこれやこの世をうみ渡る船(66단)」

헤이안교 이른바 교토에서는 바다를 볼 수 없다. 미야코를 떠난 귀족은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을 텐데, 신기해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남자가 본 것은 포구마다 서있는 작은 배들이다. 남자는 그 배와 자신의 신세를 연상한다. 이 작은 배들은 험한 바다를 어렵게 건너는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느낀다. 인생은 고힘(苦海)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아리와라 나리히라의 할아버지인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이 일으킨 구스코의 변(薬子の変)²¹⁾이 실패하면서, 그 자손인 나리히라의 형제는 황족에서 신하로 격하되었다. ‘아리와라’라는 성을 받음으로서 더 이상 황족이 아닌 신하

21) 810년 후궁인 후지와라노 구스코(藤原薬子)의 부추김에 다시 천황이 될 욕심을 가지고, 헤이조쿄로 천도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로 살아야 하는 비극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당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후지와라 씨(藤原氏) 섭정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권력에서 멀어져야만 했던 황족이었다. 이런 자신들의 신세를 후미진 ‘히나’에서 한탄한다.

67단 역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역시 남자는 친구들이랑 길을 떠난다. 음력 2월이라고 하니, 가장 추울 때이다.

…이코마 산(오사카와 나라 경계에 있는 산)을 보니 흐리기도 하고 개이기도 하고,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침부터 흐렸는데 낮에 개었다. 눈은 하얗게 나뭇가지 위에 내렸다. 그것을 보고 같이 가던 사람 중 하나가 노래를 읊었다.

‘어제 오늘 구름이 피어올라 가리는 것은, 가지마다 꽃이 핀 숲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인가보다’

…生駒の山を見れば、雲りみ晴れみ、立ちゐる雲やまず。朝より曇りて、昼晴れたり。雪いと白う木の末にふりたり。それを見て、かのゆく人のなかに、ただひとりよみける。

「きのふへふ雲の立ち舞ひかくろふは花の林を憂しとなりけり」(67단)

이코마 산의 설경을 노래하면서 인간사를 담고 있다. ‘어제 오늘 구름이 피어올라 가리는 것’이라는 구절은 미야코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른바 후지와라 씨(藤原氏)를 은유한다. ‘꽃이 핀 숲’은 바로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산위의 구름은 꽃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²²⁾ 당시 후지와라 씨의 타씨배척(他氏排斥)을 말하는 것이다. 비운의 황족으로 살아가는 아리와라 씨의 불운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히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속에서는, 자신들을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하나 87단 역시 비슷한 설정이다. 앞에서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는 세쓰 지방에 영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친구들이 찾아온다. 남자는 이렇다 할 관직을 가진 자가 아닌 모양(なま宮づかへしければ)이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니, 찾아온 사람들 역시 신세가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해변을 유람하다 산위의 폭포를 구경하러 올라가서는 폭포에 관해 노래를 짓기로 한다. 그런데 그 노래는 하나 같이 신세타령하는 것들뿐이다. 마치 ‘동쪽지방으로의 유리’에서 같이 길을 떠난 그런 친구들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의 세상이 언제 올까 기다린 보람 없음에 눈물로 이룬 폭포 어느 쪽이 높을까’

22) 窪田空穂. 『伊勢物語評釈』, 東京堂出版, 1977, p.181

주인이 다음으로 읊었다.

‘폭포 위에서 끈을 풀어헤친 사람이 있는 모양이로다. 하얀 구슬이 끝없이 떨어지는구나. 나의 소매는 좁은데’

「わが世を今日か明日かと待つかひの涙の滝といづれ高けむ」

あるじ、次によむ。

「ぬき乱る人こそあるらし白玉のまなくも散るか袖のせばきに」 (87단)

이렇게 자신의 불우한 경우를 폭포에 빗대어 노래를 읊는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구슬을 켄 실이 풀려서 구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유한다. 여기서 ‘소매가 좁다’²³⁾는 것은 관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입부에 남자는 이렇다 자랑할 만한 관직이 아닌 하위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진주가 흘러 떨어진다는 것은 눈물이 흘러내림을 비유한다. 미야코가 아닌 ‘히나’가 배경인 만큼 그들의 노래 역시 우울하다.

위의 3개의 이야기는 그냥 보면 미야코에서 벗어나 ‘히나’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세 모노가타리』에서 ‘히나’는 그런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다. 특히 미야코의 권력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아리와라 나리히라에게는 자신의 불우함을 표현하는 배경이 된다. 자신의 신세와 연상해서 뭔가 우울하고 슬픈 사연을 담고 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인공인 남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신세타령으로 읽을 수 있다.

5. 맺은말

『이세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인 남자의 무대는 미야코만이 아니다. 미야코에서 벗어난 ‘히나’가 그 무대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그 무대가 미야코가 아닌, 즉 ‘히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이세 모노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히나’의 세계,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생각하는 ‘히나’, 그리고 『이세 모노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히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중에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스미요시(住吉, 이즈미 지방)에서 ‘기러기 울고 국화꽃 피어나는 가을도 좋지만 봄에

23) 가마쿠라 시대의 주석서(冷泉家流伊勢物語抄)에 ‘소매가 좁다는 것은 비하하는 말이다(袖のせばきとは卑下の詞也)’라는 구절이 있다. 즉 천한 사람의 옷은 소매가 좁다. 따라서 자신의 관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살기 좋은 스미요시 해변(雁鳴きて菊の花咲く秋はあれど春のうみべにすみよしのはま)이라는 찬미의 노래를 읊는 68단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미야코 사람들의 ‘히나’에 대한 우월감 내지는 선입견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 많다.

먼저 미야코를 떠난 남자는 ‘히나’의 여자로부터 노래(와카)를 받는데, 작자 혹은 편자는 ‘히나’ 여자가 지은 노래에 대해서 ‘노래조차 촌스럽다’거나 혹은 ‘촌사람의 노래치고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라는 평을 한다. 이 말에는 촌사람은 노래를 잘 짓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헤이안 시대 미야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의 하나가 와카인데, 시골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바로 미야코의 우월적 사고를 여실히 드러낸다.

두 번째로 『이세모노가타리』에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남자는 ‘히나’를 배경으로도 많은 여자를 만나고 사랑한다. 그런데 ‘히나’에서 만나는 여자와의 만남은 항상 이별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자는 그 무대가 ‘히나’임에도 항상 마음은 미야코에 있는 여자를 그리워한다. 즉 몸은 비록 미야코를 떠나 ‘히나’에 있으나, 그 마음은 항상 미야코를 바라보고 미야코의 여자를 그리워한다는 설정이다. 여기서 ‘히나’는 결국 ‘히나’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야코를 향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상대적 의미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야코를 떠나 ‘히나’로 내려가서 삶을 시작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다. 비록 본인이 선택해서 내려간 ‘히나’이지만, 하나같이 더 좋아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미야코 남자로부터 결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도 미야코와 ‘히나’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한때 도읍지였던 나가오카쿄에서의 이야기가 있다. 당시 나가오카는 결코 황폐한 곳이 아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한때는 도읍지였던 곳이고, 거의 완성된 도읍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직도 황녀들과 그 자제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을 ‘황폐한’이라는 수식어로 장식하는 것은 헤이안쿄가 아니면 무조건 경시하는 차별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히나’에서 친구들이랑 풍류를 즐기는 남자는, 항상 슬픈 사연을 노래한다. 풍경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면 될 것도 같은데, 비운의 황족으로 권력에서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곱씹는다. ‘히나’는 자신의 불우함을 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세 모노가타리』에서 ‘히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하

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히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기 보다는, 미야코를 전제하고 그와 대비되는 차별적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안 시대 귀족의 주된 무대는 미야코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은 바로 ‘미야비’였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参考文献】

- 구정호(2005) 『아무도 모를 내 다니는 사랑길』, 제이앤씨
이상경(1996) 「『伊勢物語』에 나타난 대치적 구성에 관한 연구」 『日本学報』 제36집.
秋山虔(1987) 『王朝文学空間』, 東京大学出版会.
今井源衛(1985) 『在原業平』(王朝の歌人 3, 集英社).
片桐洋一(1981) 『伊勢物語 大和物語』 (鑑賞 日本古典文学 5, 角川書店)
片桐洋一(1990) 『伊勢物語の新研究』, 明治書院.
神野藤昭夫(1992. 4) 「伊勢物語・平中物語」(『国文学』, 学灯社).
小町谷照彦(1993. 10) 「業平(伊勢物語)」(『国文学』, 学灯社).
窪田空穂(1977) 『伊勢物語評釈』, 東京堂出版,
佐藤謙三(1982) 「在原業平と伊勢物語」(『平安時代文学の研究』, 角川書店).
鈴木日出男(1991) 「色好みの成立」(『国文学』, 学灯社), p.42
鈴木日出男(1988) 『別冊国文学 竹取物語 伊勢物語 必携』, 学灯社.
武光誠(고선윤역)(2000) 『3일만에 읽는 일본사』, 서울문화사, p.53
玉上琢弥(1975) 『王朝人のこころ』(日本の古典, 講談社).
三木紀人(1985) 「都・鄙」(『国文学』, 学灯社), p.30
三田村雅子(1985) 「みやび・をかし」 『国文学』, 学灯社), p.52
吉田精一(1975) 『日本文学鑑賞辞典』, 東京堂出版), p.20

要 旨

『伊勢物語』は、独立した125個のエピソードからなる、平安時代の最初の歌物語である。よって、昔男は、125個のそれぞれ違う舞台の主人公として登場する。その舞台は平安時代の貴族らの主な舞台である平安京、いわゆる、「みやこ(都)」ばかりではない。『伊勢物語』の舞台はみやこから離れた伊勢地方であったり、東国であったりする。いわゆる、「ひな(鄙)」がその舞台となることがある。

まず、みやこを離れた昔男は、「ひな」の女から和歌をいただくが、それを語り手は「歌さへぞひなびたりける」「みなかの人の歌にては、あまれりや、たらずや」と評する。これは、「ひな」の人は、平安時代のみやこの人の必修条件である和歌を詠むことも、理解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る、先入観のあらわれである。

昔男は「ひな」でもたくさん女の女と恋愛するが、それは常に離別を前提としている。それに比べ、昔男は「ひな」にいなながらも、みやこの女を恋しがることが多い。よって、「ひな」とは、それ自体意味があるのではなく、みやこに心向くことを強調するための相対的意味として存在するものと見える。

昔男は友と伴に「ひな」で遊覧することも多い。風景を眺め「ひな」での余裕を楽しめば良いものの、悲運の皇族として藤原氏体制のなかで生きる者として、その立場を「ひな」の景色に連想して、自分の不遇を表現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に、本稿では、「ひな」での話に注目して、『伊勢物語』で描いている「ひな」とは、いかなるものか、その意味に接近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ひな」は、それ自体が一つの価値がある存在というより、みやこを前提として、それと対比する差別的な概念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平安時代の貴族の主な舞台がみやこであり、彼らが追求する理想が「みやび」であることを思えば、充分理解できる。

キーワード：都、鄙、みやび、ひなび、在原業平、藤原氏、平安京、長岡京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